

**유명인사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취재활동은
금지명령신청의 대상이 된다**

Galella v. Onassis 353 F. Supp. 196 (S. D. N. Y. 1972)

전문 사진작가인 프리랜서 로날드 가렐라(Ronald Gallela)는 점잖은 명사들의 생활사진을 촬영해 왔는데, 특히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인 재클린 오나시스 여사를 주로 촬영했다. 재클린이 묘사한 것처럼, 그의 수법은 그녀를 놀라게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어느 곳이든 갑자기 나타나서 그녀에게 끈질기게 접근하는 침해적인 추적이었다. 가렐라는 그의 촬영 대상인 재클린이 단순히 카메라를 싫어하고 일반 대중들과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으며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위해 비밀 경호원들과 다른 경찰관들에게 그의 사진촬영을 방해하도록 요청하여 가렐라는 그들로부터 수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130 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의 생계를 방해하는 사진촬영금지 명령을 철회하도록 탄원했다. 한편 오나시스 여사는 보상적이고 징벌적인 손해배상금 150 만 달러와 사진촬영금지명령을 지속시키기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미연방정부는 전직 대통령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된 비밀 경호원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가렐라를 제재하는 금지명령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오나시스 여사와 합세했다. 이 두 사건은 병합되었고, 연방지방법원은 그 사진사(가렐라)의 행위가 기소될 수 있는 습격, 폭행, 괴롭힘, 관습법과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 민권법의 위반, 그리고 정신적고충을 가하는 불법행위 등의 구성요건이 성립되므로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지했다. 따라서 재클린과 연방정부는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가렐라가 사진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허락받았다. 지방법원의 쿠퍼(Cooper)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 스무개가 넘는 에피소드들이 사실에 대한 보충적 판단에 요약되어 있다. 이것들은 다음과 같은 예증을 포함하고 있다. 즉 그녀의 자녀들이 유리문을 팽하고 세차게 닫게 되었고, 학교 부모들이 부딪쳐서 상처를 입었고, 통행이 차단되었고, 섬광전구(카메라 플래시의 빛)가 시력에 영향을 주었고, 장례식이 방해되었고, 망원렌즈가 아무도 모르게 사용되었고, 원고(사진사)가 피고(재클린) 친구의 아파트 로비까지 피고를 쫓아갔고, 원고는 시시각각으로 그 도시의 구석구석까지 피고를 추적했고, 피고를 오토바이로 추적했고, 원고와 그의 조수들이 피고를 둘러싸고서 소리치면서 빙빙 선회했고, 원고 피고가 스타킹과 양말을 사는 것을 슬금슬금 기웃거렸고, 섬광전구가 칠흑같이 컴컴한 밤에 갑자기 번쩍거리며 터졌다. 이 모든 것들이 깜짝 놀라게 하고, 소리치고 그리고 거칠게 행동한 가렐라에 의해서 자행되었다. 또한 이 많은 예증들이 시시각각으로 반복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금지명령을 하기 전에 발생했다. 그는 그림자와 같았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따라 다니면서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데 피고가 교회, 장례식장, 극장, 학교, 식당 등에 가든, 또는 외국에서 요트를 타든, 그에게는 신성불가침 지역이 없었다. 원고(가렐라)는 그의 이런 행위들을 부정했으나, 고의 자백이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오나시스 여사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타당하다.

1969년 10월 21일에 가렐라가 그녀의 리무진 자동차에 돌진했을 때, 그녀는 공포에 질렸다. 뉴저지 주의 그랜드 스톤에서 승마를 하고 있는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을 가렐라가 추적했을 때, 그의 행동이 말을 놀라게 한 결과 그녀의 자녀들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됨으로써 그녀를 근심스럽게 한 원인이 되었다. 브푸클린 하이트에 있는 올리브 스미스씨의 집에서 오전 2시에 뒤쪽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서 갑자기 나타난 가렐라가 그녀를 혼비백산시켰다. 가렐라가 링컨 기념관 아래에 있는 터널에 나타났을 때, 그는 오나시스 여사와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회전문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때 그녀는 누군가가 그 문에 부상을 입을 것 같아서 깜작 놀랐다. 가렐라가 극장에서 한 기묘한 행동은 연극 프로그램으로 얼굴을 가린 오나시스 여사를 당황하게 했다. 수영을 즐기면서 동력보트에 타고 있는 오나시스 여사의 주위를 그가 맴돌고 있을 때, 그녀에게 너무 가까이 접근했기 때문에 그녀가 놀라서 배의 프로펠러에 다칠 뻔 했다. 카프리에서 그녀의 쇼핑여행에 대한 그의 미행은 그녀를 무섭게 하고 계획을 망치게 했다. 1971년 10월 7일에 있었던 조이스 스미스와 같이 행동한 가렐라의 택시 추적은 오나시스 여사를 「난파」시켰다. 가렐라가 센트럴 공원에서 담장 뒤로부터 갑자기 뛰어내렸을 때, 존이 깜짝 놀라서 타고 있던 자전거를 쓰러뜨렸다. 오나시스 여사는 공포에 가득 차 있었다고 그녀의 심경을 설명했다. 1970년 12월 에그 산타클로스(가렐라)가 컬리지 학교의 안팎을 따라다녔을 때, 그녀는 극도로 당황했다. 「베로나의 두 신사(Two Gentlemen of Verona)」가 공연된 그 날 밤에 그녀에 대한 가렐라의 난폭한 추적은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고, 그녀를 「괴롭고」, 「창피스럽고」 그리고 「무섭도록 당혹한 상해」를 만들었다. 여러번 위험한 속도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서 그녀의 자녀들이 타고있는 자동차를 따라다녔다. 이러한 가렐라의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의 안전을 염려해 비밀 경호원들이 배치되었다. 덧붙여서, 오나시스 여사와 그녀의 자녀들은 깜작 놀라게 하는 행동들, 난폭한 행위들, 군중들, 그리고 다른 적대적인 행동들에 대해 대단히 특수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오나시스 여사의 첫번째 남편과 그녀의 시동생인 오버츠 케네디 상원의원의 암살은 일반 시민들에게 대단히 잘 알려진 사건이다. 이 사건들은 오나시스 여사의 일상생활을 특별히 연구하고 그리고 그녀의 시동생의 장례식을 기록한 가렐라도 너무나 확실하게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들은 오나시스 여사와 그녀의 자녀들을 가렐라의 상귀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특별히 민감하게 만들었고, 가렐라의 행동을 더 난폭하게 만들었으며, 그의 촬영대상물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민감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게 했다.

수정헌법 제 1 조는 언론이 뉴스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어떤 종류의 행위에도 폭 넓은 자유를 부여한다는 명제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제한적 범위 : 몇 가지 판례들이 어떤 장소에서의 뉴스취재, 특히 사진촬영에 의한 취재는 비록 기자나 사진사들의 행동이 조심스럽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을 제정했다. 우리들은 수정헌법 제 1 조가 가렐라에게 오나시스 여사의 자녀들의 학교, 친구의 아파트 건물의 로비 그리고 식당과 같은 사적건물의 내부에 침입하도록 면허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역시 수정헌법 제 1 조는 가렐라가 하녀에게 사랑을 호소하고,

고용인들을 매수하고 그리고 피고의 출발, 도착 그리고 그녀 자택 내부의 생활을 탐지하기 위한 감시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명령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피고가 공적 인사」라고 주장한 원고의 재판번호사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피고(재클린)는 그녀의 사생활 영역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어떤 사건에서든 우리들이 재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반복해서 말하면 그녀는 명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헌법 제 1 조는 명사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를 취재하는 모든 행위를 면제하지 않는다. 공약 인사를 침해하고, 괴롭히고 또는 끊임없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고통을 주는 헌법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현」에 대한 침해와 사생활의 균형 : 이 사건 전에 있었던 판례들이 「표현」에 대한 공공적 이익과 관심사를 실제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많이 접해왔다. 어쨌든 전의 판결 기록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정당화한다.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지속적이고 대단히 강한 형태의 범죄적 행위가 일부 공중으로 하여금, 그녀가 길거리를 걷고 있는 동안에 또는 극장 그리고 공공회합에 나타났을 때 그녀가 무엇을 입고 있고, 또는 그녀가 백화점에서 무엇을 사고, 또는 그녀가 식당에서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습득하도록 하는 희생물이 되어야만 하는가? 수정헌법 제 1 조가 역시 그것을 강요하는가? 확실히 이 쟁점은 수정헌법 제 1 조가 보장하는 엄숙한 명제를 알보이게 한다. 이 사건에서, 센트럴 공원에서 거닐고 있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녀의 자녀들과 산책을 하고 있는 피고의 사진들, 그리고 기타 같은 종류의 것, 그녀가 산 잡지가 무엇이고, 그녀가 커피에 넣은 것이 무엇이라고 지정한 그의 사진 설명들 등은 대중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가렐라가 이러한 사진들과 단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녀에게 고통을 가하는 괴롭힘은 분명히 그가 이런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이익보다 비중이 크다. 이 문제를 다룬 대부분의 법정들은 이러한 이익형량의 원칙(balancing test)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이익형량의 원칙은 사생활에 대한 개인적 권리의 보호와 수정헌법 제 1 조의 목적에 대한 양면적 반응이다. 확실히, 수정헌법 제 1 조는 국가의 자치에 관련된 사항인 공무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오나시스 여사는 그녀의 생활이 많은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들을 지니고 있는 명사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의 왕래에 대한 정보, 발레에 대한 그녀의 취향, 그녀가 먹는 음식 그리고 가렐라가 3 년 동안 추적한 독점적 생산물인 다른 사소한 것들 등이 중요하게 공공문제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다른 한편으로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 당대의 위급한 일에 대처하도록 했다」고 말해질 수 없다. 그것들은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킬 뿐이다.

사생활의 침해 : 원고가 지속적으로 기웃거리며 따라다니는 행위는 불법적인 사생활침해의 구성요소가 된다. 우리들은 일상행위에 대한 사생활에 관해 거의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거침없이 퍼붓는 욕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실재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감히 제언할 수 있다. 뉴욕 항소원은 사생활권이 점차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아래서 기소될 수 있는 사생활침해가 어떤 것인지를 결정할 단계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른다. 우선 우리들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림자처럼 접근하는 점을 재고하도록 요구한다. 그는 그녀의 움직임을 공표하려는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그녀를 감시해 왔다. 그는 때를 가리지 않고 그녀의 자택 밖에서 기다려 왔다. 그는 뉴욕시의 여기저기에 그녀를 따라다니고, 그녀가 휴가 또는 휴양을 떠나면 시 근교와 외국까지 그녀를 추적하고, 식당(그녀가 무엇을 먹었는지를 기록함), 극장, 오페라관 그리고 다른 오락 장소에 그녀를 쫓아가고 그리고 그녀가 쇼핑을 가면 그녀를 따라가서 계산대에 있는 그녀에게 접근하고 그리고 점원에게 그녀가 구매한 옷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 등과 같이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녀를 쫓아다닌다. 그의 감시는 그가 「이따금씩 오나시스 여사를 찾아 나설 여자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압도적인 침해이다.

그는 그녀의 습관, 그녀의 가정부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경호업무에 관해서 연구했다. 그는 그녀의 개성, 그녀의 쇼핑기호와 습관, 그리고 그녀의 오락선호에 관해 상당할 정도로 논평할 만큼 대단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런 밀접한 감시를 해왔다. 그는 명확한 만족감을 가지고서 「일상적으로 습관적인 감시」에 관계했다. 그는 그녀의 자녀들의 학교에 침입해왔고, 식당에서 옷걸이 뒤와 숲속에 숨어왔고, 미장원에 살금살금 들어갔고, 그리스에서 도어·맨들, 소지품보관소의 직원들, 낚시꾼들을 매수했고, 자동차 운전사들과 학생들을 매수했고, 고용원들과 연애를 해왔다. 요약하면 가렐라는 오나시스 여사의 생활 구조속에 교묘하게 스며 들어왔고 본 법정에 대한 그의 요구도 자신을 세상에 돋보이게 하려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점을 생각컨대 가렐라의 행위는 판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생활권의 형태에 속한다. 그 감시, 밀착된 그림자 같은 행위 등은 명백하게 「지나치게 열심」이었고 그리고 그 결과 기소 되었다. 더구나 가렐라의 도어맨에 대한 부패행위, 하녀와의 연애, 자녀들의 학교에 기만적으로 침입하는 것 그리고 구매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상점과 식당을 다시 방문하는 것 등은 폴드(Fuld) 판사가 기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생활 그리고 비밀스러운 종류의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에 모두 부합되는 것이었다.(Nader, 25 N. Y.24 at 569, 307N.Y. S.24 at 654, 255N. E.2d at 770.) 뉴욕 주법이 뉴욕 주의 최고법정에 의해서 선언된 것처럼 콜롬비아 지방법원의 법과 다른가? 로버선 대 오체스트 홀딩박스사(Roberson v. Rochester Folding-Box Co., 171N. Y.S38, 64N. E.442, 1902 년)에서의 판단은 사생활침해가 뉴욕서 기소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지지하지 않았다. 오버선 사건의 판단에 관한 부수적 의견이 언명된 이래로, 광범위한 감시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행위로부터의 자유는 대부분의 다른 재판관할권들에서 보호되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사생활권익의 중요한 요소는 일반적으로 「혼자있을 권리(right to be left alone)」를 포함한다. 즉 그것은 생활의 유쾌함을 상실하지 않는 묵상 또는 다른 목적들을 위해 평온의 수단을 성취하기 위해서 타인의 규제되지 않는 의도와 지속적이고 속된 습격으로부터 자유를 향유하는 요소, 공적인 주시로부터 개인적이고 사적인 특성과 행동의 보호, 사사의 범위에 대한 정의이다. 그 이론적 근거는 정보수집을 시도하거나 계속하는 비합법적인 침해행위로 부터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있고,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과 기계에 의한 정보의 비합법적인 탐색, 수집, 저장, 분배 그리고 전파 등과 같은 사생활에 대한 악습이 제한되지 않고 있다. 사생활권은 「자유, 인격 그리고 자존심」을 침해하는 인간성을 상실케 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

가렐라와 그의 고용원들은 뉴욕 지방법원에 의해 오나시스 여사가 살고 있는 케네디의 자택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들에 300 피트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는 금지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역시 모든 다른 장소에서 그 자녀들로부터 225 피트 그리고 오나시스 여사로부터 150 피트 떨어지도록 명령 받았다. 또한 가렐라는 그 가족들을 감시하거나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뉴욕 항소심법정은 수정헌법 제 1 조가 기자의 뉴스취재행위를 보호하는 어떤 자유에 관한 면책의 장벽을 설정하지 않은 채, 하급심의 뉴스취재 과정에서의 범죄행위와 불법행위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디터맨(Dietmann) 사건에 대한 판단이 사생활에 관한 미래의 법에 대해 중요한 판단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준하면서, 브란츠버거 대 헤이스(Branzburg v. Hayes), 로젠브룸 대 메트로 미디어(Rosenbloom v. Metromedia), 그리고 디터번 대 타임사(Dietmann v. Time, Inc.) 등의 사건을 인용했다. 항소심법정은 다소 다른 판결을 내렸다. 즉 오나시스 여사와 그녀의 자녀들로부터 유지하는 가렐라의 거리를 축소시켰다. 가렐라가 오나시스 여사로부터 떨어져 유지하는 거리는 150 피트에서 25 피트로, 그리고 캐롤라인과 존에 대한거리는 225 피트에서 30 피트로 축소시켰다. 그러나 그 판결은 애비뉴 5 번가에 있는 오나시스 여사의 자택에 대한 가렐라의 접근제한은 배척했다. Galella v. Onasis, 487 F. 2d 986(C. A. N. Y. 1973)